東大新聞

發行人 李 瑄 根
編輯人 鄭 允 欽
印刷人 方 又 榮
主幹 宋 赫
編輯部長 金 澤 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㉑8131—2
本社直通 ㉑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不欺不怒,
意不求多,
如是三事,
死則生天。

속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많음을 구해 탐심을 내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즐겨서 행하면 죽어서 곧 천상에 태어나리라.

<法句經>

民族的 긍지, 文化氣風 크게 振作

講演場마다 聽衆으로 大盛況

全國巡廻 學術講演 各支部同窓會 적극 協助

「韓國의 傳統」이란 主題아래 열린 第2回「全國巡廻學術講演會」가 지난달 18일 春川市를 선두로 시작된 이래 11月1日 水原市民會館講演會를 끝으로 2週間의 바쁜 日程을 모두 마치고 약 2반여명의 청중을 동원한 가운데 盛況裡에 그 幕을 내렸다. 開校 71周年을 기념하여 光州, 大邱, 釜山등 全國主要 17개 도시에서 펼쳐진 이번 學術講演會에서는 民族의 傳統사상과 文化창달에 새로운 의지를 되새겼다.

지난해 開校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企劃室 (室長=閔丙天博士) 이 주관하여 시작된 이래 두번째를 맞이한 이번 學術講演會는 徐廷柱 (문리대·문학) 교수등 본교 교수들로 구성된 연사들에의해 「韓國의전통」이란 주제하에 전국 주요 17개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 생존 의지와 문화전통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본교의 건학이념과 대학문화의 전파로 지방문화창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는 주로 민족적 긍지와 문화창조 기풍을 진작하는 내용의 강연과 본교의 여제와 오늘을 소개하는 小型영화 「오늘의 東國대학교」의 상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18일 춘천을 필두로 시작된 이번 강연회에 참가한 각지역별 청중을 살펴보면, 춘천 9백명 원주1천명 청주9백명 대전9백명 이리2천명 전주5백명 정읍1천명 광주8백명 인천2천명 김천1천5백명 대구 (2회) 2천5백명 부산8백명 진주2천5백명 강릉8백명 수원9백명등 총2만여명의 청중이 몰려 연일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강연회에 참가한 청송가운데 남녀고교생들은연사들에게 싸인공세를 벌리기도하여 일부지역에서는강연회가 끝난뒤에 혼잡을빚기도 했다.

한편 各地域別 강연회가끝난후 各지부 동창회에서는 演士들을 초청 만찬회를 열고 母校의 發展方向에대한 모색과 동문 상호간의 親睦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各지방의 新聞과 放送, TV등에서는 강연회에 고보도와 강연내용을 자세히보도하기도 했다.

總1천백16名參加

10泊11日間 각종 戰術訓練

지난달 29일부터 육군종합행정학교 문무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양학부생들의 兵營集體訓練 출발신고식이 지난 28일(金) 12시 각학년별 학생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있었다.

교련교육의 점검과 大學人力의 전력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있는 이 교육의 금년도참가자는 총 1천1백16명인데 이날 출발신고를 받은 李總長은격려사 (이형추교양학부장 대독)를 통해 『북괴의 침략에 대비하여 文武를 겸비한 護國學徒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들의 壯途를 빌었다.

이에앞서 이들은 이날오전 10시부터 대운동장에서 최종군장검사를 가졌으며 申告式을 마친후 버스 28대에 分乘, 李東南 학군단장의 인솔로 목적지인 陸軍綜合行政學校로 출발했다.

또한 이들은 29일 (土) 文武試에서 入所式을 가진후 오는 7일까지 10泊11日間에 걸쳐 전술훈련, 화기훈련, 내무생활등 각종訓練을 마치고 오는7日 歸校하게 된다. 한편 敎養學部에서는 護國團연수교육에 본격적인 참가자 이광호君등 (總務部長·行政3)、신상수 (指導部長·體教3)군이 참가했다.

지난31일부터 5일까지 5박6일간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會館에서 열리고있는 이 연수교육은 전국대학학교동국단 간부를 대상으로 간부의 자질향상을위해 실시되고있는데, 제2차敎育을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行政科親善體育會

1學年우승차지

行政學科 親善體育大會가 지난 27일(木)第一工學館앞 운동장에서 열려 1학년이 優勝을 차지한 가운데 끝났다.

◇李總長이 기증받고있다. 수공예작품전에 出品된 우수작 1點을

敎養學部生 兵營集體訓練

28日 大運動場서 申告式 가져

스노베日大使 來校

李總長禮訪, 校內돌아봐

지난 1日 스노베(須之部量三) 駐韓日本大使는本校를 訪問하고 李瑄根總長과 환담한 다음 李總長의안내로學生會館 運華苑 體育館 博物館등학교 시설을 돌아보았다.

電算院 特講

技士資格시험대비

電子計算院 (院長=錢昌源박사) 에서는 2급情報處理技士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特講을 지난 29일부터 G건물 특강실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다.

美展觀覽 7천여명

質·量的으로 括目할 成長

美術學科주최 제4회 東大美展이 7천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등 성황리의 성황속에 지난 18일부터 G건물2층 특별전시장에서 열려 9일동안 계속되었다.

金昌熙 美術科 주임교수는 「작년보다 質·量面에서 모두 뛰어났다」고 말하며 「다만 學生施設비로 조소부문등은 材料가 단순한 점을 흠」이라고 評했다.

作品發表會 關心끌어

달콤、衣裳發表會、건축展등

지난주에는 民俗劇研究會의 「봉산탈춤公演」, 家政科 「第一回 衣裳發表會」, 「建築展」등 多樣한 行事가 펼쳐져 各科와 써클이 그동안 닦아온 技術과 活動相을 보여줌으로써 커다란 關心을 모았다.

지난 26日 (水) 오후 체육관에서 1백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3時와 5時 두차례에 걸쳐 盛況리에 펼쳐진 民俗劇研究會 秋季定期公演에는 김재천 (印哲·2) 군등이 出演, 봉산탈춤 제7과장중 2과장 「팔목춤」 3과장 「사당춤」 5과장 「사자과장」 6과장 「미얄마당」 등 4과장을 上演하였다.

또한 建築工學徒의 학습의욕 振作과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한 第1回 「建築展」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려 약 8백여명이 관람하였다.

金昌熙 美術科 주임교수는 「작년보다 質·量面에서 모두 뛰어났다」고 말하며 「다만 學生施設비로 조소부문등은 材料가 단순한 점을 흠」이라고 評했다.

護國團 野營大會

鄭允武處長 特講도

學徒護國團 (사단장=金一亨·印哲3) 第3回 野營大會가 지난 29, 30日 양일간에걸쳐 江華島 傳燈山莊에서 열렸다.

學徒護國團 간부의 리더쉽 함양을위한 이 야영대회에는 중대장급 간부 80여명이 참가했는데 특히 오는 11일에 있을 교련검열에 대비한 간부의 역할및 학도호국단운영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야영대회에서 鄭允武學生處長은 「現代戰의 本質과 護國學徒의 使命」이라는 특강에서 「現代는 후방의 정신전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간부들은 후방의 정신교육의 책임자로 솔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品質管理 技士에

工經科 8名 合格

공업진흥청 시행 제3회 품질관리기사시험 (실기 품질관리기사 자격시험) 에본교 工經科 최중현군등 8명이 합격되었다.

지난 18일 工業振興廳의 합격자 발표에 따르면 본교의 工業經營學科 4학년 상전, 이승현, 이숙진, 차영석, 김도영, 김덕원, 권 혁, 전인창군등 8명이 합격하였다.

教員資格申請

12日까지원서접수

敎務課에서는 78년 졸업예정자에 대한 敎員資格申請書를 오는 7일(月)부터 12일 (土) 까지 접수한다.

申請資格은 師範大生 및 교직과정을 이수한후 교직을 희망하는 非師範大學生으로 提出서류는 소정양식의 검정원서 1,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사진등 각각 2매씩을 첨부하여 제출하면된다.

警行科同門會

會長에李활우敎授

本校 警察行政學科 제11차 同門會가 10월22일 오후6시 동천호텔 2층別室에서 열렸다.

崔燁燦法政大學長을 비롯하여 교수,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任員개선및 事業計劃이 토의되었는데, 신임회장에는 李瓚雨 (본교法政大學·경찰) 金大圓 (국제통신 과장) 田泳和 (국제문제연구소) 교수가 선출되었다.

다음은 신임會長團의 명단이다.

▲회장=李瓚雨 (본교法政大學·경찰) ▲부회장=崔啓洙 (보안사·소령) 金大圓 (국제통신 과장) 李相鉉 (국제문제연구소) ▲임원=洪淳九 (법제처·사무관) 李瓚雨 (본교法政大學·경찰) 田泳和 (국제문제연구소) 교수가 선출되었다.

護國團 野營大會

鄭允武處長 特講도

學徒護國團 (사단장=金一亨·印哲3) 第3回 野營大會가 지난 29, 30日 양일간에걸쳐 江華島 傳燈山莊에서 열렸다.

學徒護國團 간부의 리더쉽 함양을위한 이 야영대회에는 중대장급 간부 80여명이 참가했는데 특히 오는 11일에 있을 교련검열에 대비한간부의 역할및 학도호국단운영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야영대회에서 鄭允武學生處長은 「現代戰의 本質과 護國學徒의 使命」이라는 특강에서 「現代는 후방의 정신전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간부들은 후방의 정신교육의 책임자로 솔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敎養學部 特講

31日부터、女學生대상

敎養學部 여학생 전체특별교양교육이 남학생들의 입영집체교육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月) 부터 8일 (月) 까지 9일간 계속되는 이번 여학생교양교육은 오전10시부터 2시간동안 G312에서 실시되는데, 교육내용은 교양강좌와 작품만들기, 미용강좌등이다.

교육일정및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10월31일 (月)
○1교시=李丙畴 (교양학부장)=「특별교양강좌의 의의」
○2교시=朴東琪 (교육주임)「Project 76」 기록영화 감상

▲11月1日 (火)
○1교시=柵奇燦 (불교대교수) 「구원과 지옥」
○2교시=趙演鉉 (문리대교수) 「여성과 취미」

▲11月2日 (水)
○1교시=睦根培 (불교대교수) 「불교와 여성」
○2교시=洪起三 (문리대교수) 「한국여류문학」

▲11월3일 (木)
○1교시=문희자 (경희간호전문학교교수) 「미자保健」
○2교시=오경환 (「미술감상」 현대미술의 이해」)

▲11월4일 (金)
○1~2교시=김명수 「매듭수예품 (Felt) 만들기」

▲11월7일 (月)
○1교시=한희희 (사대교수) 「여성학」
2교시=태평양학 미용강좌

부터 실시되는 면접과 체력검정은 학군단및 운동장에서 실시되는데 體力檢定은 1백m, 턱걸이, 넓이뛰기, 2천m, 수류탄투척등 5개종목이다.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는 14日 (月) 오전9시부터 실시되며, 지참물은 小명함판사진 4매, 흑색볼펜및 본인도장등이다.

한편 10日로 연기마감하는 2차 지원자의 일체검사는 추후 발표한다.

ROTC 1次 마감

4日 신체검사、12日면접

2次 모집은 10日까지

獎學生 선발試驗

12日、石造館서 大學別로

學生處(처장=鄭允武박사)에서는 78학년도 제1학기 獎學生선발시험을 오는 12일 (土) 오후2시 석조관에서 각단대별로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前學期成績 80점이상인 자로서 각학과 10명이내의 범위에서 소속 지도교수와 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한다.

試驗科目은 英語 한국문학으로, 장학생은영어점수 50%, 전학기성적 50%로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敎養學部生 兵營集體訓練

經營大學院 凱歌

李起彬씨 1百萬원 喜捨

(特殊大典)

美術學科주최 제4회 東大美展이 7천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등 성황리의 성황속에 지난 18일부터 G건물2층 특별전시장에서 열려 9일동안 계속되었다.

「靑林의 날」맞아

풀베기작업계획

敎職員조기청소

敎政·공원 일대에

敎授動靜

▲黃鍾永 (博物館長) 博士=許術박사) 에서는 지난 30일 成均館大운동장에서 열린 제4회 문교부長官盃장학 「전국特殊대학원 體育大會」에서 전국 10개팀을 모두 물리치고 배구경기에서 우승하는등 개가를 올렸다.

▲金鍾眞 (佛敎大·哲學科) 박사=지난 29일 中央大學校에서 열린 哲學研究會주최 제영구발표회에서 「自然科學에 있어서의 直觀의 問題」라 題題로 주제 발표.

▲郭基燮 (行政科) 교수=지난 29일 (土) 아스트리아에서 전순자嬰과 華燭식을 올려 주례.

▲黃鍾永 (博物館長) 博士=許術박사) 에서는 지난 30일 成均館大운동장에서 열린 제4회 문교부長官盃장학 「전국特殊대학원 體育大會」에서 전국 10개팀을 모두 물리치고 배구경기에서 우승하는등 개가를 올렸다.

▲金鍾眞 (佛敎大·哲學科) 박사=지난 29일 中央大學校에서 열린 哲學研究會주최 제영구발표회에서 「自然科學에 있어서의 直觀의 問題」라 題題로 주제 발표.

▲郭基燮 (行政科) 교수=지난 29일 (土) 아스트리아에서 전순자嬰과 華燭식을 올려 주례.

會長盃 테니스 同窓會大會

柳豊雲·申日植組 등 優勝

제3회동창회장배쟁탈 테니스대회가 지난10월30일(日) 본교 동창회 (회장=崔敎九·국회의원) 주최 東國테니스회 (회장=宋基成·변호사) 주관으로 교우와 學徒護國團 테니스코트에서 개최되었다. 金盛遠 동창

교수=한국여류문학 미용강좌

○2교시=趙演鉉 (문리대교수) 「여성과 취미」

▲11월4일 (金)
○1~2교시=김명수 「매듭수예품 (Felt) 만들기」

▲11월7일 (月)
○1교시=한희희 (사대교수) 「여성학」
2교시=태평양학 미용강좌

敎養學部 特講

31日부터、女學生대상

敎養學部 여학생 전체특별교양교육이 남학생들의 입영집체교육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月) 부터 8일 (月) 까지 9일간 계속되는 이번 여학생교양교육은 오전10시부터 2시간동안 G312에서 실시되는데, 교육내용은 교양강좌와 작품만들기, 미용강좌등이다.

교육일정및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10월31일 (月)
○1교시=李丙畴 (교양학부장)=「특별교양강좌의 의의」
○2교시=朴東琪 (교육주임)「Project 76」 기록영화 감상

▲11月1日 (火)
○1교시=柵奇燦 (불교대교수) 「구원과 지옥」
○2교시=趙演鉉 (문리대교수) 「여성과 취미」

▲11月2日 (水)
○1교시=睦根培 (불교대교수) 「불교와 여성」
○2교시=洪起三 (문리대교수) 「한국여류문학」

▲11월3일 (木)
○1교시=문희자 (경희간호전문학교교수) 「미자保健」
○2교시=오경환 (「미술감상」 현대미술의 이해」)

▲11월4일 (金)
○1~2교시=김명수 「매듭수예품 (Felt) 만들기」

▲11월7일 (月)
○1교시=한희희 (사대교수) 「여성학」
2교시=태평양학 미용강좌

敎職員조기청소

매월 1일 실시되는 이조기 청소에는 각 학처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참가하여 학교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가꾸어나가는데 특히 이날은쥬빌리 동산 정원 일대에서 실시한다.

敎授動靜

▲黃鍾永 (博物館長) 博士=許術박사) 에서는 지난 30일 成均館大운동장에서 열린 제4회 문교부長官盃장학 「전국特殊대학원 體育大會」에서 전국 10개팀을 모두 물리치고 배구경기에서 우승하는등 개가를 올렸다.

▲金鍾眞 (佛敎大·哲學科) 박사=지난 29일 中央大學校에서 열린 哲學研究會주최 제영구발표회에서 「自然科學에 있어서의 直觀의 問題」라 題題로 주제 발표.

▲郭基燮 (行政科) 교수=지난 29일 (土) 아스트리아에서 전순자嬰과 華燭식을 올려 주례.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루 살로메의 生涯
H·F·페터스著 金成謙訳

女性이라는 굴레를 벗고 유럽 精神文化 위에 찬연히 타오른 神秘의 불꽃, 루 살로메

니체·릴케·바그너·프로이드 등 유럽 知性들의 가슴에 끝없이 번져간 사랑의 불꽃, 루 살로메.

루 살로메는 모든 恋人들의 가슴에 뜨겁게 살아있는 魔力的인 女人입니다. 값1200원

靑年社 서울 종로구 내수동91
㉮5860 총판: 進明書林 ㉖4597

※루 살로메의 生涯는 최근 이태리 女流감독 「카바니」에 의해 映画化되어 女性解放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論争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著 桓宗朱 京畿大교수 經濟學博士

經濟學概論

最新의 經濟學理論들이 알기 쉽게 各分野에 걸친 수준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서술이 평이해 初學者나 각종 시험 應試者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强點을 가지고 있다.

<東亞日報> (77. 8. 8)
完全競爭을 전제로한 新古典派의 一般 均衡理論의 문제점을 상세히 부각시키고 있다.

<韓國日報> (77. 7. 29)
古今의 經濟學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한 力著이다. 經濟學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批判的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經濟學의 윤곽을 槪括的으로 알아보고 싶은 讀者에게는 물론, 각종 採用試驗에 參考書로서 適合하다.

<日曜新聞> (77. 8. 28)
一其他「週刊朝鮮」「每日經濟新聞」「政經研究」「新東亞」등의 新刊評에서 절찬!

一潮閣發行

<新菊版, 1,270面, 값5,500원>
全國有名書店서 發賣中

新刊案內

汎友에세이文庫

各卷 280원

61 馬海松 故鄕山水
62 韓勝憲 어느 누가 묻거든
63 에머슨 隨想錄
64 알랭 語錄
65 가알드너랭 帽子哲學
66 李仁老 破閑集
67 崔臣海 三十年이라는 歲月
68 李恒寧 落葉의 自畵像
69 카알힐티 가난한 밤의 散策
70 李章圭 追憶의 바이올린

汎友文庫는 어느 書店에서나 낱권으로 구할 수 있으며 계속 간행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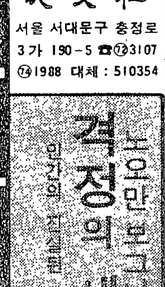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90-5
☎ ㉳3107 ㉴1988

汎友社 新刊

全國 書店에서 絶讚裡에 販賣中!

스타탄생

A. 에드워드 / 鄭英一·金成烈共譯



그래도 알몸으로 강은 흐른다

李미륵 / 鄭全和譯

孝皮千得外

孝에세이 37人集

<값950원>

그 끝이 보일 때까지

루이제 린저 / 洪京鎬譯

<값900원>

◘「압록강은 흐른다」의 속편으로 새로이 발견된 故李미륵 박사의 遺作!

陳雄基 노을속에 피는 꽃

許英子 여쁠이야 어찌 꽃뿐이랴

<값950원>

申京子 영혼의 傷處

F·사강譯

<값600원>

申京子 달이가고 해가가면

F·사강譯

<값600원>

李正林 브라암스를 좋아하세요

F·사강譯

<값700원>

鄭鳳九 어떤 微笑

F·사강譯

<값600원>

眞正한 女性

마리넬 몰간 / 全敏植譯

<값1,000원>

◘세계 정상을 달리는 톱스타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

<값1,000원>

社說

集體訓練과 修練大會

지난 28일 본교 1학년 학생 1천2백여명은 일주일동안 평영전체훈련을 받기 위하여 文武臺에 입소하였다. 이날 교양학부 1학년 학생 전원은 오후1시에 본교대운동장에 모여 각대학원장을 비롯한 학적장 전원과 1학년 각과지도교수및 상급학생들의 환적리에 간단한 입소신고식이 있었다. 이날부터 4일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학생들의 정신무장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은 학생들의 정신무장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학생들의 정신무장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학생들의 정신무장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격려사에서 李총장은 오늘의 國家安保태세와 연관하여 볼때 앞으로 指導者가 될 大學生들이 나라의 防衛와 心身의 단련을 위하여 일주일동안의 평영전체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요지의 훈시를 하였고 學生 전원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부하였다. 이날 교양학부장및 교학부장을 통하여 격려사를 대독케 하였다.

이 격려사에서 李총장은 오늘의 國家安保태세와 연관하여 볼때 앞으로 指導者가 될 大學生들이 나라의 防衛와 心身의 단련을 위하여 일주일동안의 평영전체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요지의 훈시를 하였고 學生 전원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부하였다. 이날 교양학부장및 교학부장을 통하여 격려사를 대독케 하였다.

훈련은 오후1시에 본교대운동장에 모여 각대학원장을 비롯한 학적장 전원과 1학년 각과지도교수및 상급학생들의 환적리에 간단한 입소신고식이 있었다. 이날부터 4일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학생들의 정신무장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학생들의 정신무장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학생들의 정신무장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武臺에 入所한 모든 學生들은 좀더 活潑있고 기상있는 모습으로 일주일간의 훈련을 무사히 끝내기를 바란다. 결코 6·25동란과 같은 민족상잔의 비극이 再發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우리 學生들의 使命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모든 學生들은 이점을 명심하여 훈련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兵營集體訓練과는 달리 지난주에는 學徒護國團 간부들의 수련이 강행되었다. 훈련이나 수련은 반드시 전투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신체의 단련은 곧마음의 단련을 의미하기도하며 따라서 人格도야의 일환으로 누구나 거쳐야할 하나의 人間完成의 과정인 것이다.

폴라톤은 일찌기 그의 「國家篇」에서 모든 국민은 18세에서 20세까지 2년동안 훈련을 받아야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人間의 全人的인 人格의 完成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훈련을 계기로 全學生을 대상으로 한 學生軍事訓練團을 설치하여 文武臺에 入所한 모든 학생들이 1년에 2주일씩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이것은 결코 學生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學生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學生들이 모두 건전한 國家觀과 社會觀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國際演劇藝術會議 참가기

界演劇의 動向

張漢基 〈文博·演映科 敎授〉

이번에 筆者 외 한국대표 네 명(現地 會員 두명을 포함)이 參加한 本學會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heatre Research」라고 하며 그 本部는 파리에 있고우리 韓國演劇學會가 이에 정식으로 가입한것은 1975년이다.

이번이 여덟번째가 되는 本會議는 西獨 뮌헨에서 開催되였으나 每回마다 그場所는 일정하지 않다.

4年마다 한번씩 열리고 있는 이 會議는 國際間의 演劇論의 交流와 그 硏究, 硏究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會議에는 共産圈을 포함 40여개국 代表들의 論文이 발표되었다.

이번 大會의 主題는 「Theatre Space」로서 演劇의 發生이래로 이때까지 가장 연극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演劇空間의 처리문제와 그에 대한 再認識의 문제점들이 광범위하게 論議되고 전개됐다.

각 나라 代表들은 우선 자기나라 演劇空間에 관한 論文과 資料들을 발표하고 새로운 연극공간에 따른 작품의 硏究의 문제점들이 진지하게 論議되었다.

이틀째면 실제적인 극장건축에 관한 조사보고에서부터, 審美的인 연극공간의 활용도와 그 대책들이 장구되고, 이에 수반된 많은 문제들이 提起되여 論議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課題는 演劇과 社會, 演劇과 觀衆, 演劇空間의 새로운 의미 등이 중요한 論題로써 제기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Theatre areas in Asia」란 論文과 筆者가 준비한 「Space of Korean folk play」란 論文이였다.

특히 아시아地域에서는 이 參加하여 異彩로왔고, 論文의 質들이 東洋思想을 바탕으로 한 空間의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民俗놀음의 醫美的·抽象的인 演劇空間의 문제를 다룬것으로 8월11일자 「한국일보」紙上에 이미 그 要旨는 발표된 바 있다.

더욱이 그들 西方世界에 우리 演劇을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民俗劇의 舞踊와 空間性에 비상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놀라지않을 수 없었다.

이번 大會에는 世界各國의 演劇學者와 그 관계硏學들이 모여 9월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그야말로 진지한 「硏究發表와 質疑應答으로써 始終했다.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장외의 연극공간 문제를 두고 장시간토론이 전개되고 연극은 영원히 공간을 배제할수 없으며 규정할수도 없다는 점에 일치했고, 저마다의 연극은 제나라 국민정서와 實情에 알맞는 연극만이 이상일수 있을 것이란點에 찬동했다.

나는 최의편 이곳 유럽연극계의 실태조사와 극장및 대학 연극학과의 諮問이 주요 목적였기에, 본회의 3주전에 「유럽에 도착했다.

마침 뮌헨大學에서 演劇學을 공부하는 사실이 우리 學生들의 關心을 모은 듯 하여 文武臺에서 가서 學生 전원을 인계하고 돌아왔다.

교양학부에서는 여러번 學生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고 또한 두번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文武臺에 入所한 모든 學生들은 좀더 活潑있고 기상있는 모습으로 일주일간의 훈련을 무사히 끝내기를 바란다. 결코 6·25동란과 같은 민족상잔의 비극이 再發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우리 學生들의 使命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모든 學生들은 이점을 명심하여 훈련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文武臺에 入所한 모든 學生들은 좀더 活潑있고 기상있는 모습으로 일주일간의 훈련을 무사히 끝내기를 바란다. 결코 6·25동란과 같은 민족상잔의 비극이 再發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우리 學生들의 使命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모든 學生들은 이점을 명심하여 훈련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兵營集體訓練과는 달리 지난주에는 學徒護國團 간부들의 수련이 강행되었다. 훈련이나 수련은 반드시 전투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신체의 단련은 곧마음의 단련을 의미하기도하며 따라서 人格도야의 일환으로 누구나 거쳐야할 하나의 人間完成의 과정인 것이다.

폴라톤은 일찌기 그의 「國家篇」에서 모든 국민은 18세에서 20세까지 2년동안 훈련을 받아야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人間의 全人的인 人格의 完成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훈련을 계기로 全學生을 대상으로 한 學生軍事訓練團을 설치하여 文武臺에 入所한 모든 學生들이 1년에 2주일씩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이것은 결코 學生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學生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學生들이 모두 건전한 國家觀과 社會觀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鄭用吉 〈政博·學行科 助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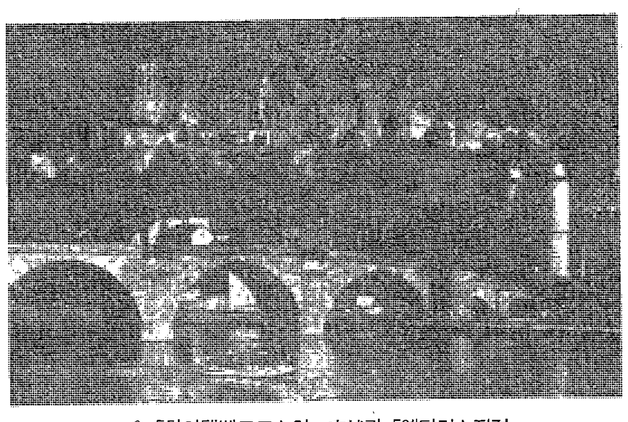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의 大學生活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라고하면 흔히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에서나 보여주듯이 대학생들이 학생주막에서 맥주와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명창을 합창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넥카」 (Neckar) 강변에서 로맨스를 즐기는 낭만적인 學究生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낭만의 발자취는 아직도 「하이델베르크」 城 밑에 있는 「로텐옥센」 (Roter Ochsen) 이나 「제플」 (Seppl) 이라는 술집에 가면 더러 볼 수 있고 또한 몇몇 학생선배들의 年中行事에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제는 貴重品을 더 구하는 西獨學生들의 여느 젊은 學生들과 낭만을 즐길만한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옛 부터 조성되어 왔던 몇 저술의 한 부분 생존해 있는 저술의 옛 전통들과 새로운 新會員이 모인가운데 그 저술의 制服과 制帽를 다 같이 쓰고 낮에는 엄격한 규율밑에 칼 싸움을 벌이고 밤에는 맥주나 포도주를 마시며 밤새워 합창과 춤을 즐기면서 전통적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생들의 옛모습을 그려본다.

「하이델베르크」 城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폐허!」라고나 할까. 아니면 「신비의 古城」이라고나 할까, 城 맞은편에는 「哲學路」가 있는 山이있고 이 가운데로 120m 폭의 「넥카」 江이 찬잔히 흐르고, 이 江 위로 「헷 다리」가 걸쳐있어 도시의 美를 더욱 돋군다. 좀은 「中央通」으로 달리면 電車도 지난해 여름부터 다니지 않고 다만 여기 저기 步行者를 위한 거리로 반듯하게 보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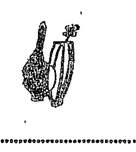
◇ 「하이델베르크」의 古城과 「옛다리」 정경

「하이델베르크」 城일이나 아니면 「넥카」江 건너편에 있는 「哲學路」 (philosophenweg) 부근의 아주 경치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가히 「몽키호테」라도 여기서 한번만은 깊은 사색에 빠질 것이라고 이곳의 자연환경을 극찬하고 싶을 정도다.

自然이 이처럼 아름다우면 간혹 人間은 理性을 잃게되는지도 모른다. 즉 1712년부터 1914년까지 2백년이 넘도록 「하이델베르크」 大學에 「카르저」라고하는 「大學監獄」이 존속하고 있었다니 말이다. 그 당시 學生들 중에는 가끔 이 유치장 獨房에서 홀로 사색할 기회를 갖고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여기 6개의 방에 원통의 쇠남북, 쇠그덕거리는 책상과 쇠 침대가 놓여 있고 벽에는 1㎝의 틈 남겨놓지 않고 그린 學生金言 그리고 學生監語등의 낙서로도 유명한 「비스마르크」도 이곳 置場에 自畵像을 그려놓고 간 것을 보면 그당시 학생사회의 실태조사와 이 「카르저」에 들렀다가 나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닌것 같다.

분회의 사무총장 Huesmann박사가 우리들의 신체와 마음은 人格에 있어서의 마음의 양날을 축복할 수는 없을테니까. 또한 교장선생님의 인사말, 각종 행사의 축사와 격려사, 학학교의 교훈·급훈 같은 것들이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이거나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형식의 허물같은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게 된다. 그런 종류의 거짓말들은, 그러나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대체로 진실에 대한 흥기의 역할만 하게 만들거나 위선에 동화하는 농력을 길러주거나 상투화된 인습적인 사고방법만을 배양해 주는 독소가 되기도 한다. 거짓말이나 진실이라는 것이 때로는 독약과 같아서 잘 쓰면 약이 되고 못쓰면 해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삶에도 信念과 目標가 있는 것처럼 集團의 생활에도 理念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면 東國學園의 理念, 즉 東國精神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나는 아직 東國精神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고, 막연하나마 다소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몇마디의 분명한 논리로써 표현할 수 있을만큼 정리되어 있지도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요를 느끼고 있고, 東國人이라면 누구나 서로 다른 동국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 가치있다고 인정되는 공통의 이념이 정리되어서, 우리 모두가 추구할 東國精神으로 동국인의 학문적인 지표로나 타나게 되기를 바라고싶다. 형식주의 적인 虛辭가 아니라 실제의 가치와 힘을 지닌 어떤 것으로써 말이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은 폭력을 수반하는 용기가 된다고 다시 말할 수 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東國精神은 그런 인식의 결과를 지나서 저절로,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결에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大學閑話

東國精神

洪起三 〈文理大·英講〉

浪漫의 발자취 짙게 풍겨

西獨大學, 수업료는 모두 면제

外國留學生 전교생의 11%

◇ DM 100이내 0.49%
◇ DM 100~150까지 0.90%
◇ DM 150~250〃 2.63%
◇ DM 250~350〃 6.41%
◇ DM 350~450 〃 27.80%
◇ DM 450~550〃 31.83%
◇ DM 550~700〃 14.97%
◇ DM 700~900〃 5.84%
◇ DM 900이상 6.09%

月 DM 450~550을 生活費로 가장 많이 쓰는 학생들이 31.83%로 가장 많은데 대부분의 독일학생들은 週末에 자기집에 가서 일주일분의 식료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학생 自擔이 아닌데 반해 外國學生들은 생활비가 더 든다. 그러나 독일에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모자라는 돈을 父母로 부터 얻고, 여의치 않을 때는 自力으로 해결하는등 一로 나타났다. 參考로 外國學生들이 받을 수 있는 奬學金과 宗教團體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등 많다. 이러한 各種의 장학금 혜택을받으려면 좋은成績表(Seminarschein)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독일유학 1年內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自力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放學期間中에많으며 보수도좋다. 그러나 學期中勞動은 금지되어 있다. 勞動을 하는 放學期間에는공부할 수 없기때문에 外國學生이 勞動으로만 學費를 마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3. 月 房賃

◇ 頁룸 네지않다 4.11%
◇ DM 80까지 4.93%
◇ DM 80~100까지 7.57%
◇ DM 100~120〃 15.46%
◇ DM 120~140 〃 15.79%
◇ DM 140~170〃 19.08%
◇ DM 170~200〃 10.44%
◇ DM 200~250〃 8.47%
◇ DM 250~350〃 8.63%
◇ 그 이상을 내는경우 5.51%.

독일에서 학생들이 쓸수있는 房은 전체의 1/3이 안된다. 모두 월세방이다. 그 중에서도 약 25%의 학생은 保證金을 내며 36·19%는 방소개로도 지불하고 있다.

이상의 최근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학생실태 자료는 西獨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귀중한 도움이되리라고 믿는다.

◇종로2가파고다공원옆 (별표전축)4층
관인 종로외국어학원 ⑦④2815

試驗對備를 위한
土·日特講 [담당 : 김 영 조]
開講 月1日
受驗英語 (유형·어휘문법·독해정복) 평일 A.M. 7:30~8:20
VOCABULARY 오후 6:30~8:00
TIME 오후 1:00~2:30
大學編入英語 아침 7:30~9:00 오후 5:00~6:30
Cassettes 녹음테프(교실강의 이상으로 완벽한 설명이 들어 있음)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전화로 문의하십시요.
문의 : 74-0483
時事英語学院

안경은 시력검사따라
광신안경
▲고도근시 ▲백내장용
▲가벼운렌즈
신예용안과1층 ⑦④5559
(3·1빌딩~광교중간)

卒業班이되면
入社
◇취직정보 ◇실제시험문제분석 ◇업체안내
11月特大號 정가 680원
100대기업 실제시험문제집 영어·상식
發行處 아리오社

공개강의 10. 29(토) 2시 11. 5(토) 2시
1970년부터 고대·연대·서울대·이대·인하대에서 AFKN특강을 해오신 김철호선생 직강!
AFKN
◉매주일월화 9시 News완전본문과 해설우송
◉TV드라마 월2회 우송(우송료없음)
회원의 특전
◉저서·AFKN청취법(三志社)할인제공
◉2주 뉴스와 드라마 카셋트 60분(600원)
◉한달에 2번 토요강좌(10시 TV뉴스해설)
회비 2,500원 카셋트 우송시 4,000원(2개)
시사영어학원 72-9226 종로2가 태극당옆

ROTC
오라! 젊음의 뿌리가 내린곳에
경양식과 음료
생음악 스테이지와 Disc Show
←비원 단성사→
뿌리 2층 낙원상가↓
비원앞
☎ 25-0398

東國大學校 韓國學硏究所 編
古典小說全集
全十二卷/全帙 四八/〇〇〇원

第一卷 權龍仙 傳
第二卷 金仁香 傳
第三卷 南江公 傳
第四卷 金鶴月 傳
第五卷 潘仙記 傳
第六卷 李進士 傳
第七卷 玉陰陽 玉指環 傳
第八卷 林花延(上) 傳
第九卷 林花延(下) 傳
第十卷 張翼星 傳
第十一卷 河陳兩門 錄
第十二卷 韓山白 玉 傳

第一卷 金剛聚 傳
第二卷 金山寺夢遊 錄
第三卷 金振玉烈行 傳
第四卷 朴喜慶 傳
第五卷 三謝鼠 同知 傳

第一卷 郭海龍 傳
第二卷 金益重 傳
第三卷 芙蓉相思曲 傳
第四卷 淑女知己 傳
第五卷 蟾同生奇逢 傳

第一卷 金牛太子 傳
第二卷 金龍仙 傳
第三卷 三雙美奇緣 傳
第四卷 申淑知腹 傳
第五卷 魚龍鄕聘 傳

第一卷 金龍剛 傳
第二卷 金太平 傳
第三卷 李學振 傳
第四卷 陳將軍 傳
第五卷 青年悔心曲 傳

第一卷 柳雲英 傳
第二卷 陰陽三台星 傳
第三卷 張李妃 傳
第四卷 鄭進士 傳
第五卷 荊山玉 傳

第一卷 玉月英 傳
第二卷 玉玉丹 傳
第三卷 玉玉仙 傳
第四卷 玉玉朱 傳
第五卷 玉簫奇 傳

第一卷 玉花奇夢 傳
第二卷 玉氏雄奇 傳
第三卷 玉雙麟記
第四卷 玉玉梁 傳
第五卷 玉玉薛 傳

第一卷 玉將軍 傳
第二卷 六孝子 傳
第三卷 柳文成 傳
第四卷 玉玉鼠 傳
第五卷 玉玉英 傳

第一卷 華山奇 逢
第二卷 韓氏報應 錄
第三卷 趙鄭善感別曲
第四卷 鄭乙生員 傳
第五卷 彰鳳感義 錄

第一卷 華山奇 逢
第二卷 韓氏報應 錄
第三卷 趙鄭善感別曲
第四卷 鄭乙生員 傳
第五卷 彰鳳感義 錄

外語면역의 권위자
김순호 선생직강
V·T·R 스크린영어
특별초빙공개
때 : 1977년11월12일(土)오후2시
※공개강좌에 참석못한 분들을 爲해 每日 오전 10~오후8시까지 개별상담 안내를 해드리고 있읍니다.

序論

問題 제기

(1) 校服着用의 必用性

着用한 옷이 디자인과 색채를 하고 일정한 형태일때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 주고 착용자 자신이 어느 단체의 구성원인지를 알수 있게 해준다。이와 같은 옷을 制服이라고 하고 학교의 제복이 곧 校服이다。이같은 종류의 옷은 道德과 品格을 갖게 하며 규율을 지켜 질서유지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호감을 주는 복수적인 효능도 생각할 수 있다。

김정노의 「사회 심리적인 령향의 의복에 주는 영향」에 관한 저서에서 보면 思春期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의복이 있는데 이것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이럼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학교 제복이 소홀이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2) 目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고등학생들이 전통적으로 교복을 입어 왔다。각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것은 자유복을 입을 경우에 학생들이 의복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여 사치해지기 쉬운 경향을 막기위함과 학생지도상의 문제들을 고려한 때문이다。교복으로록 같은 복장을 하여 학생 자신의 身分을 명확히 區別할 수 있으며 한 집단의 정원으로서 규율및 질서를 잘을 수 있다。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발달을 하고 통적인 행동이 많은 여고생들의 통학복인 교복은 活動的고 技能的이면서 또한 美的인 면도 갖추어져야 될것이다。현재의 교복은 이와같은 조건들이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으며 착용자는 학생은 어떻게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조사된 논문은 없었다。그러므로 이에 관한 의견조사를 하였다。

(3) 교복에 어울리는 신발은?

문항에서는 운동화를 신게 하자는 의견은 90%로 나타났고 구두를신자는 의견은 10%로 나타났다。크다고 구두는 운동화보다 우수하며 보편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관상으로도 아름답다。

(4) 교복의 모양은 계절에 따라 구별을 두자。물체로여름, 겨울 겨울에 따라 구별이 된다。세제는 계절 구별없이 재로만 바꾸면 된다。네제로 계절 구별이 괄의 길고 짧음만 변화시키면 된다。이 네문항에서 여름, 춘추, 겨울에 따라 교복의 구별을 원한다는 의견이 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계절의 구별없이 재료와 괄의 길고 짧음만 변화시키면 좋겠다가 14%로 나타났다。

(5) 교복의 모양을 통일할 경우, 원하는 칼라의 모양?

①칼라의 모양

칼라의 모양으로는 스탠칼라가 많으며 현재 여고생 교복칼라 모양을 16%가 찬성하였으며 스포츠칼라는 15%, 칼라없이 타이를 맨 형식적인 면을 좋아하는 학생이 13%, 와이셔츠 칼라는 11%로 나타났다。칼라는 목부분이 많이 노출되지않아야 하며 또 너무 좁아서 목부분에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현재 교복의 칼라는 대체로 목부분이 많이 파져서 괄의 활동시 칼라가 들떠서 속옷이들여다보여 정숙한면에 문제점이 있다。그리고 스탠칼라는 여학생답게 귀엽고 얌전한 인상을 주며 목선이 얌맞게 파져 적합하다。

②상의의 모양에 있어서

여학생 교복상의로 많이 입히는 블라우스는 칼라, 커프스가 19%, 커프스가 52%로 가장 많으며 허리를 불라우스가 19%, 허리에 벨트를 매는 형이 13%, 잠바모양(Box형)이 2%였다。

여학생 교복블라우스는 기능상 위생상에 있어서 미관상 활동하기에 편하나 위생상에 있어서 나오와같이 디-트형 블라우스가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된다(현재의형과 같음)。이다트형 블라우스는 짧게입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불편을 없애고 활동하기에 편리한 스커트를 착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③스커트의 모양

스커트 모양을 볼때 절문에서는 앞주름 1개있는 A-line skirt가 31%로 가장 지지도가 높았으며 프레어스커트가 22%, 플리츠스커트와 앞맞주름이 2개인 스커트가 15%이고 고오드스커트가 5%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이 입고있는 플레어스커트는 불어지기 쉽고 폭이 넓어 활동시 불편을 준다。

타이트 스커트는 모양은 예쁘나 몸에 압박감을 주는 경향이 있고 활동에 불편을 주고있다。이 두 스커트들을 절충하여 美的인 면과 活動性을 보완한 맞추름 A-line skirt가 디자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복의 색에 관한 의견

(1) 현교복색에 대해 느낀점

이 문항에서는 학교마다 독색이 있어 학교를 구분하는 점은 좋으나 너무 색이 많아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며 색이 너무 화려하여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모양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에 답한 교사들은 약간의 변형을 주고 교복을 입고있는 학교에서 대부분이 지지하였으며 대부분이 여름, 겨울 교복을 통일하고 학교마다 각각 다른 색을 살리고 특색있는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복을 지금의 상태에서 가장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부분은?

설문에서는 앞주름 1개있는 A-line skirt가 31%로 가장 지지도가 높았으며 프레어스커트 22%, 플리츠스커트와 앞맞주름이 2개인 스커트가 15%이고 고오드스커트가 5%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이 입고있는 플레어스커트는 불어지기 쉽고 폭이 넓어 활동시 불편을 준다。

타이트 스커트는 모양은 예쁘나 몸에 압박감을 주는 경향이 있고 활동에 불편을 주고있다。이 두 스커트들을 절충하여 美的인 면과 活動性을 보완한 맞추름 A-line skirt가 디자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료와 일반 의견

(1) 현교복에 대한 의견

제에서는 전반적인 모양에 대한 교복 착간의 변형을 주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①현재의 교복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없어서 현교복이 개전되기를 원한다。현교복의 중점으로 상의가 개량하여 dart형 블라우스가 여고생 체형에 알맞아 들이고 허리 線을 잘라주어 활동시 불편을 막아야 한다。

③하의는 슬랙스보다는 스커트일기를 원하는 傾向이다。여고생체격에 맞는 A-line 스커트로 하고 주름을주어 활동을 편하게해야한다。

②색에있어서

①하복과 춘추복색상이는 흰색으로하고 ②하의의 색깔은 짙은색을 중심으로 해야한다。

(2) 복색의 상의는 하의와 조화되는 다른색을 써서 상·하 같은색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스포티한 現代感覺을 느낄수 있게 해야한다。또 사회에 나가 민지의 잔재의식같다라는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와이의 복지는 몸매를 강조하여 보기좋다는 의견과 몸매를 감추어 보기좋다는 의견이 반반이었다。

결론

현재의 교복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며 교복을 지금의 상태에서 가장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부분은?

설문에서는 앞주름 1개있는 A-line skirt가 31%로 가장 지지도가 높았으며 프레어스커트 22%, 플리츠스커트와 앞맞주름이 2개인 스커트가 15%이고 고오드스커트가 5%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이 입고있는 플레어스커트는 불어지기 쉽고 폭이 넓어 활동시 불편을 준다。

타이트 스커트는 모양은 예쁘나 몸에 압박감을 주는 경향이 있고 활동에 불편을 주고있다。이 두 스커트들을 절충하여 美的인 면과 活動性을 보완한 맞추름 A-line skirt가 디자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복의 색에 관한 의견

(1) 현교복색에 대해 느낀점

이 문항에서는 학교마다 독색이 있어 학교를 구분하는 점은 좋으나 너무 색이 많아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며 색이 너무 화려하여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항목에 답한 교사들은 약간의 변형을 주고 교복을 입고있는 학교에서 대부분이 지지하였으며 대부분이 여름, 겨울 교복을 통일하고 학교마다 각각 다른 색을 살리고 특색있는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료와 일반 의견

(1) 현교복에 대한 의견

제에서는 전반적인 모양에 대한 교복 착간의 변형을 주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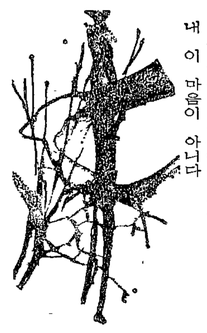
②모양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에 답한 교사들은 약간의 변형을 주고 교복을 입고있는 학교에서 대부분이 지지하였으며 대부분이 여름, 겨울 교복을 통일하고 학교마다 각각 다른 색을 살리고 특색있는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스커트의 모양

스커트의 모양을 볼때 절

絶望앞에서서

박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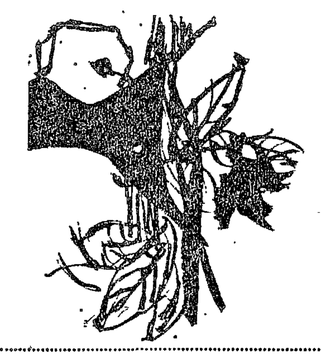
저리도 겨운 날들이 지나가고
다시금 오는 꽃앞에 아침이 오면
절망 앞에 서서 우는 者는
절망을 가슴으로 부르고 있다。
절망을 원하는 者의 목소리
이승에 와서 그리움 찾는 자의 목소리
내일은 어느 곳에서 절망을 기다리고
어느 곳에서 절망을 만나는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이 마음이 아니다
영원한 자의 마음을 같이
절망은 그리움을 부르게 한다。
밤이 오고 밤이 지나가도
나의 절망은 영원한 눈빛
그리도 많은 날이 내게로 와서
나에게 절망을 노래 부르게 한다。
절망과 함께 사는 자
절망과 함께 죽는 자
절망 앞에 서서 기도하여라。

〈詩人·佛敎大 僧伽科〉

가을에세이

쓰레기통 속에서 웬 거지가 꿈틀대고 있다。이젠 그만。모두들 이젠 그만。

는 쇼우윈도우에 剝製되어 걸려 있다。



이제 겨울이 어떻게 그 동전을 거지가 외친다。사람들이여 事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鍾路에 거지가 없다고? 鍾路에 나가보라。거지가 무명, 무명썩 이신 번이 얼마든지 있다。광신들의 天國으로 鍾路가 놓여져있다。여기 있는가, 天國은。웬거지가 종일거린다。音樂이, 音話가, 진실이 어디있는가, 웬 거지가 술잔을로 얼굴을 벌겋게 칠해 옷고있다。돈돌같은술잔 방울이 미친듯이 그의 얼굴을 후려 갈기고 있다。무엇을 구경하는가。거지야 네가 바라는 것이 동전 푼이 아니고 무엇이더냐。쓰레기 속에서 웬 거지가 물들며고 있다。이제 그만。모두들 이젠 그만。

〈文理大 史學科〉 李 薰

가을에세이

李 鍾 靑 〈美術科〉 畫

다리 건너편 작은 가게 속에서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날려왔다。그 소리 때문에 다시멀추지 않을 수 없었다。무언가 장렬한 거부의사로 뭉쳐진듯한 표정이 또 왔다。그녀가 너 표정을 보려고 봤다는듯이 얼굴을 경련했다。그러나 그녀는 그냥 도망치지 않았다。다시 앙정스럽기조차한 상냥한 음성으로 물었다。

『심하셨어요?』

나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머신으로 지금까지 그녀와 나눌 얼굴이 그녀가 사람을 피해가길 바라는가, 사람들이여。그러나鍾路에는 사람들이 하나도없다。

차들은 그래서 大路를 쏜살같이 달려가도 부랑하다。아, 어디로 갔는가,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숨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가。

두 거지가 鍾路에서 만나 서로 손을 내민채 떠날 줄을 모르고 있었다。

微動도 않은채 사람들을 모두 어디로 가고 그의주위엔 구경하는 사람이 모여든다。

鍾路의 陸橋 계단 중간에 웬 거지가 옷이 몰땍 벗겨진채 구경을 하고있었다。피부에 파랗게 곰팡이가 슬어있었다。웬 거지가 쇼우윈도우에 剝製되어 꼬부라진 손가락을 허공에 내뻗어놓고 구경하고 있었다。웬 거지가 그때문은 손위에 소리를 울리면서 동전을 떨구어 드린다。무엇을 구경하는가。거지야 네가 바라는 것이 동전 푼이 아니고 무엇이더냐。쓰레기 속에서 웬 거지가 물들며고 있다。이제 그만。모두들 이젠 그만。

〈文理大 史學科〉 李 薰

傳統劇의美學

民藝의「물도리동」을 보고

黃 東 根

演劇評

韓國 傳統劇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民藝劇團은 大韓民國 演劇祭 참가작품으로 『하회별신굿』의 연극적 실현이라는 구호아래 「물도리동」(全12장)을 내놓았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演劇會館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국보 第121號로 慶北 安東 河回洞 별신굿의 탈 與 作傳說인 許도령이야기를 劇化한 것이다。

許圭作·演出로 제작된 이劇은 탈 제작을 완성하고 축을을 맞아야만하는 許도령이 超越者의 暗示에 의해 축을에 떠한 공포를 극복하고 스스로 복술을 꿈을으로써 久遠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였다。

심각시의 許도령에 대한 觀覺, 山主의 질투와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갈등, 洞民들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대한 경외등이 얽혀 劇的 흥미를 더해준 작품이였다。

말만 남아 있을뿐 전하여지지 않는 하회별신굿의 복원작업이라 할수있겠다。

우리의 전통극은 연극美學上 상당한 정점을 가지고 있다。요사이 끊임없이 떠두되고 있는 연극의 한 형태를 발단으로 파국에 이르는 이야기 중심의 연극보다는 구성하고있어 도저히 별신굿의 演劇的 시도라고는 볼 수없을 것이다。

또 관계자가 말하는 하회별신굿의 복원이 아닌 그것을 찾한 예비적 시도라고 인정하더라도 예비적 작품들이 「물도리동」과 같이 훌륭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관람한 民藝의 연극은 몇몇 연기자를 제외하고는 전통극의 정통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통극에는 전통극에는 전통극의 정통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통극에는 그것이 발전 변형되어 오늘에 이르지 못하고 현시적으로 정체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래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연극보다도 현대적이고 연극적인 美學을 많이 갖고 있다。이에 하회별신굿의 연극적 실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연된 民藝의 물도리동은 별신굿의 가락과 움직임을 유추해서 멋지게 한마당 놀아보려는 전통극의 색로운 부활이 아니라 하회별신굿 자체를 새로운 형태로 이끌어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는 경멸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상놈들이 무식하고 경망스럽게 보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면 전통극에는 어울리지 않는 맨몸한 대사 등은 극의 사실성을 약화시킨다。물론 탈춤이나 巫歌들은 그것이 발전 변형되어 오늘에 이르지 못하고 현시적으로 정체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래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연극보다도 현대적이고 연극적인 美學을 많이 갖고 있다。이에 하회별신굿의 연극적 실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연된 民藝의 물도리동은 별신굿의 가락과 움직임을 유추해서 멋지게 한마당 놀아보려는 전통극의 색로운 부활이 아니라 하회별신굿 자체를 새로운 형태로 이끌어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는 경멸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상놈들이 무식하고 경망스럽게 보임으로써 善해 보이고 익살스럽게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절실한 연기가 필요하다。철두철미 없는 구절절의 문제점도 있다。이야기를 필연적 골목으로 치닫게 하는 치밀한 계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형동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형동을 하는 장면에 이르러서야 급히 인물이 한마디하게 되면 이것이 빨간불 파란불로 변해 극전체가 우왕좌왕 하는것을 볼때 뭔가 필연적부선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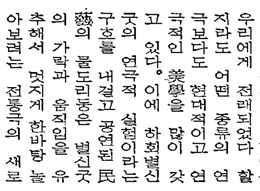
民藝가 본격적 전통극도 아니고 서구의 소설적연극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서 방에 부리를내리고 있지 못함을 볼때 한 연극학도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없다。

전통극의 정립은 곡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여러 전문가들의 시급한 참여로 본격적인전통극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물으로 우리의 것을 찾기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民藝의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文理大·演映科〉

別神굿 자체에 초점둬야

祭儀的 양식、事實的으로 表現해선 無理



成長환 (비롯있었다。그밖의 프로이드를 金成謙氏가번역한것이다。 에 이르는 知性들도 그녀와의 交感을통 해 살로메 (Lou Andreas Salome)의 傳記를 짜르 治下의 러시아에서 태어나 나치스下의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歷史的 大變革을 體驗한 루 살로메의 生涯는 뛰어난 한 女性이 보여줄수 있는 감동적이고 신비스럽운 드라마라 이)

女性解放의 先覺者 루 살로메의 傳記

나의 누이여、나의 신부여

靑年社刊

H·F·페터스著의 이 책은 니체와 릴케의 戀人이였고 女性解放의 先驅者로서 숱한 神話와傳說을 남긴 문제의 女人 루 살로메는 이상여러의 小說과 벽평이 붙는 論文 및 評論을 썼지만 作家라기 보다는 프로이드가 지적한 데로 「精神分析의 詩人」이였다。人間內部의 深層을 꿰뚫어보는 루 살로메와의 만남을 통해 니체는 워데한 獰들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탄생시킬수 있었고, 일개 무명詩人에 지나지 않았던 릴케는 世紀最大의 抒情詩人으로 成長할수 있었다。

新刊안내

文化短信

부업·취미교실

「韓國女性의집」 10日부터

「韓國女性의 집」(☎08111~2)은 신부·부업, 취미 교실을 마련하고 지난 20일부터 제3기생을 모집한다。

취미·부업 교실은 매듭공예과, 목화수예과, 칠보과, 오리과, 핀플과, 유화스케치과 등으로 나뉘고 각 과 수업은 매월 10일이면, 회비는 월 4천원이다。

金成九첼목극公演

▼金成九첼목극공연이 1~10일 三一路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작은 고골의 「검찰관」과 「결혼」 두개막물로 평일 밤7시, 극단 창고극장의 부인극회원인시리즈 세번째작품으로 제1부는 「새장」, 「카스파」, 「우리들의 초상」, 제2부는 「단식광대」, 「인형들의 합창」으로 엮어진다。그동안 이 흡차례 부인극공연을 가져온 金成九는 중매의 일상적인행위위주의 묘사가 아닌 전체의 연극속에서 극장 공간에대한 새로운 시도하고 있다。

메아리

▲T·V가 생겨나기 以前의 世代는 感情的이며, T·V들은 理性的인 世代라고 한다。T·V는 戰爭이스 생하게보여줌으로써 갑동적인 요소를 분해하는것 같다。무서우면서도 스릴있는 드라마로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무서운 존재이다。▲T·V는 우리에게 많은 제공한다。심지어 계절감각까지 날라다 주는 자상함까지 지녔다。

T·V世代

T·V 자체가 안고있는 問題點도 많다。「불 것이 없다。」「低質이다」는 혹평이 아닐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T·V世代의 T·V活用方法인것 같다。T·V에 물려가지 않고 T·V를 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그러나 T·V는 지는 바보가 되지 말고 즐기는 世代가 되는게 T·V世代의 특징이다。

T·V世代는 生活化 되였으니 말이다。

T·V 자체가 안고있는 問題點도 많다。「불 것이 없다。」「低質이다」는 혹평이 아닐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T·V世代의 T·V活用方法인것 같다。T·V에 물려가지 않고 T·V를 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그러나 T·V는 지는 바보가 되지 말고 즐기는 世代가 되는게 T·V世代의 특징이다。

T·V世代는 生活化 되였으니 말이다。

◇短篇小說

그 겨울

李 政 〈僧伽科〉
鍾 靑 〈美術科〉 畫

③

『무리일 것 같애요』

그러나 가야지요。

『시골 길 한 시간 반은 가벼운 걸음이 아녜요』

봉진이나 먼저 가 줬으런 좋겠읍니다。먼 건 두째지요。

『먼나다는 여자분은 친구예요?』

순간 나는 당혹감에 빠졌다。도대체 여자는 결국。아주 내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자는 속셈일까?그녀의 욕망이 내 속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만지고 있었다。

다리 옆에 버드나무가 양상한 가지로 늘어져 있었다。전파상에서 울려나오는 유행가 소리가 추위에 떠는 소녀의 울부짖음처럼 가슴에파고 들렸다。

숙이가 나에게 입원한 바로 직후였다。보내온 전 네가 네가 돌아본 그녀의 마지막 웃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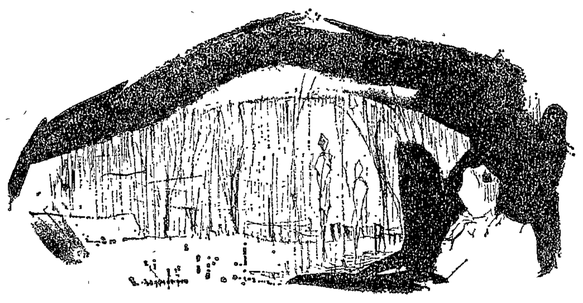
〈기다리겠어。이 환마디로 너의, 떠한 네 모든 예의를 떠신할까해。서울놈들떠 나겠어。오늘 학교에 가서 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지。그러나 학교들 그만 둘 것이라든지 하는 말은 아예안했어。어느 때처럼, 내일 아침 다시만날것처럼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돌아섰어。욕심을 내고 싶지 않아졌을 뿐야。다 우스워지겠지。단순해지고싶어。지금까지 쌓아온 그 많은 허위와 자만과 고집의 성을 일시에 무너드리고 싶어졌어。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살고 싶어。죄야。너를 사귀였던 죄라고 라도 변명하고 싶어。그러나너에게 「病身」이라는 누명은 주고 싶진않아。정말야, 정말이라 말야。네가네 옆에서 지켜본 너의 사고는 너에대한 부채야。꼭 나아 그후만나。그때까지 기다릴래。그래야 체면도 설 것같고。〉

편지를 다 읽고 난 나는 기집에, 하고 뇟었는 욕을 속으로 지껄였다。네 잘정은 그녀의 따뜨라도 갈거주고 싶은 점으로 변해 있었다。나를 하루아침에 불확실케 버린 그 사고조차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미웠다。순진한 코스에서 이탈되어 길가에 처박혀있는 버스를 보는 기분이 되어 실소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녀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잘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찾아가 화를 내고 싶었던 그녀를 오히려 무관심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찾아가는 것이다。만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심정이 되였지만, 그럼전 다 참기로 했다。

빨간 외투를 흘깃 바라봤다。숙이가 오늘까지 내게 무엇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그녀는 일깨워 주였다。그러나 기억은 만나야 한다는 한다는 정념함만 날기고 있었다。그 강렬함 때문에 역으로 다른 것들은 다 빛을 잃고 한갓 낙엽 한잎이나 돌 하나로 기억되고 있지 모른다。

버드나무가지가 겨울인데도 늘어져 있는 꼴이 색삼스럽게 생각됐다。다리 위로 다가가니 아이들이 소음이 들려왔다。바람이 빙판위의 얼음가루를 하얗게 날렸다。역시 이 마을도 마침내삶아 몰통한 들어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



인데요。너를 알아요。나도 잘알지요。정말 이젠 무척 잘 알아요。너무너무 솔따원 먹었읍니다。시방의 뱃속이 얼마나 얼마나 아야야조。매일마다 얼마나 간절히바라고 있는일이지지요。빨리 이 뭘 것입니다。여부없겠읍니까?지당한 말씀이시지요。

숙이가 가만가만 눈을 감았다。눈썹이 마주칠 듯마다。눈 얼굴이 크게 확대되어 눈에 들어왔다。나 울고 있다 보았다。창피했다。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만은。네 나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이불을 물려썼다。그러나 두려웠다。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나는 전에 노골적으로 해 본적이 없는 보지 못했다。

『얘기 하면 길에 마저 끝내자。한번쯤의 실수는 병가상사(兵家常事)다。다리를 좀 절름거린다고 해서 일못할 것도 없잖니?전화위복이 돼야 된다。너도 봐야 하니 꿈이 큰 놈인데, 우신은 꿍부나 해 둬라』

나는 그 말이 가전 드거울과 셀렘함을 동시에 느꼈다。이해했다。이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아버지는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아버지는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우리의 건강은
해태 요구르트

해태요구르트는 장수의 나라 불가리아 원산의 유산균으로 만든 대표적인 요구르트입니다.
해태요구르트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산균발효유의 대명사로서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는 순수한 요구르트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약속하는 해태요구르트를 드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직접 방문 판매합니다. 다방에서도 드실 수 있읍니다. 값 70원

해태유업